고흥군, 명실상부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5년 연속

"귀농귀촌 메카로서 명성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고흥군이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한'2023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전국 지자체 및 기업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 실적 및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해 브랜드를 선정했으며, 고흥군은 귀농·어·귀촌 유치실적,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귀향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와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을 조성해 귀향청년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지원, 가업승계 청년지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귀농어 창업자금과 삶터기반 지원 등 귀농귀촌 유치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추진 △귀농어인의 집 확대 조성 △귀촌 · 귀향인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 비전 실현을 위해 귀농귀촌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마련하고, 고흥군이 귀농귀촌 메카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2022 농식품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에서'우수기관'선정, 2022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횡단보도 집중조명 추가 설치…보행자 안전 책임

63개 추가설치, 1억 5천만 원 투입

여수시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LED 투광기)를 올 상반기에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458개소에 1,008개의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했으며,올해 교통취약지인 자산교, 충무맨션 등 주변 횡단보도 24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63개를 추가 설치한다.

LED 투광기는 야간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높이기 위한 조명장치로 야간 및 우천 시에 보행자를 쉽게 인식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증명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조명장치 추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순천시, 주민 꿈꾸는 어린이 실내체육관 실현 논의

순천시는 최근 남제동 게이트볼장에서 '남제동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이하 어린이 체육관) 건립을 위한 2회차 주민 참여 디자인단 워크숍을 열었다.

'체육관에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요·' 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는 주민 7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주민이 원하는 실내체육관 내 시설 ▲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실내체육관 시설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어려운 걸림돌 ▲사업부지 내 건물 위치 등에 대해 의견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워크숍에 참여한 한 주민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남제동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대신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해 불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실내체육관 ▲ 주민 사랑방 ▲주민카페 ▲영화상영관 등 여가생활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원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이들만 이용하는 시설 ▲정치, 종교, 상업용 시설 ▲ 공간의 사유화 등 다른 목적의 시설로 건립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 대상 워크숍을 3회차로 종료한 후 주민 의견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다각도의 디자인안을 도출해 향후 전문가, 주민이 함께하는 최종 워크숍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에는 자연 · 역사 · 사람 품은 4대림이 있다

서울대 학술림·옥룡사 동백림·백운산자연휴양림· 포스코자연림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을 마무리하는 광양은 해발 1,222m 백운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역사와 사람이 어우러진 4대림을 지켜가는 생태도시다.

광양시가 서울대학교 학술림, 옥룡사 동백림, 백운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생태와 경관을 자랑하며 웰니스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4대림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산림과학 및 생태연구, 학생 실습, 연구 결과 보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울대 학술림의 지방학술림 중 하나로 지리산과 백운산에 걸쳐 있다.

남부학술림은 수목관찰원, 자연관찰로 등을 갖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숲 체험, 청소년 진로캠프 등 다채로운 생태교육과 건강 증진의 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백운산 지맥인 백계산의 옥룡사 동백림은 비보풍수를 강조한 도선이 옥룡사를 중수하며 사찰 주변의 화기(火氣)를 누르고 땅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옥룡사는 1878년 화재로 소실됐지만 동백림은 남부지방 사찰 숲의 원형이라는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 등을 두루 인정받아 천연기념물(제48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시는 500ha에 이르는 국내 최대 동백 특화림을 목표로 매년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운산 자락에 둥지를 튼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에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춘 웰니스 관광지다.

힐링, 명상 등을 선사하는 치유의 숲, 나무의 결을 느끼며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의 집, 케빈하우스 등에서 즐기는 숲캉스 등이 모두 가능하다.

포스코자연림은 포스코 백운산수련원을 중심으로 전나무, 편백나무 등 울창한 산림과 느긋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둘레길로 시민과 관광객의 인기를 얻고 있다.

운정골 및 백련암 삼거리 등을 지나는 짧은 코스(약 3km, 45분 소요)와 긴 코스(약 6km, 90분 소요)로 나뉘어 시간과 체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광양은 명산인 백운산을 중심으로 수려한 4대림을 품고 있다" 며, "남부학술림, 동백림, 자연휴양림 등 오랜 역사와 사계절 경관을 자랑하는 광양의 4대림에서 휴식과 힐링을 만끽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보성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20일까지 기관·단체 참여

보성군은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 동안 읍·면 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보기 행사는 1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을 기점으로 18일 조성5일시장, 19일 벌교전통시장, 복내5일시장, 회천5일시장, 20일 예당5일시장에서 각각 열린다.

장보기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성사랑상품권 구입처와 카드 및 지류 사용 홍보와 장바구니 배부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면서 "움츠러든 경기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 · 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선지원 후조사
(소득 · 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 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